

# 安東金氏大宗會報

發行人 金明會  
 編輯人 金崙會  
 印刷人 金鳳會

發行處  
 서울·東大門區徽慶洞112-49  
 安東金氏大宗會中央本部  
 電話: 244-3717  
 對替口座: 010983~31~0513119  
 私書函: 서울 清涼郵遞局 137號

(非賣品)  
 이會報는 通常會費  
 年間 2千圓 以上을  
 納入한 宗親에게 無  
 償으로 配付 하오니  
 未納入한 宗親께서  
 는 빠짐없이 納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萬古忠節·流芳千秋의 表像!! 忠武公 金時敏 將軍 語錄碑 建立

獨立紀念館境內에 紀念事業會 主催로

壬辰倭亂 때、晉州牧使 兼 慶尚右道 兵馬節度使로  
 서 三千의 軍士로 三萬의 敵兵을 大破해서 壬辰亂 때  
 三大勝捷의 하나인 晉州城大捷을 거두고、壯烈히 殉  
 國한 忠武公 金時敏 將軍의 語錄碑를 獨立紀念館境  
 內에 建立하였다.

이 語錄碑는 『忠武公 金時敏 將軍 事業紀念會』(會  
 長 윤치영)에서 主管하고 提學公派의 各小派의 負擔  
 으로 一千萬圓을 募金하였고、高·十五尺·幅 十尺  
 의 花崗岩으로 華麗하게 建立하였는데、獨立紀念館  
 開館과 同時에 除幕하게 된다.

(關聯詳報는 次號에)



## 白凡金九先生展示館 開館

誕辰 110週年 紀念·孝昌園 境內에

지난 八月二十九日、서울 孝昌公園 境內에 자리한 白凡金九先生의 展示館 開館式이 舉行되었다.  
 今年는 白凡金九先生의 誕辰 一百十週年에 該當되는 날이며、八月二十九日은 우리 나라가 日本의 強壓으로 韓·日合邦이라는 屈辱의 汚點을 千秋에 남긴지 七十五週年이 되는 國恥日이기도 하다.  
 이제、白凡先生의 故人이 된지도 於焉 三十七年、그 동안 白凡金九先生 紀念事業協會에서는 先生의 偉大한 功績을 顯揚하기 위해、平素한 努力이 持續되어、白凡 會館이 建立되었고、墓域의 聖域化와、銅像建立 等의 事業이 이루어졌고、이번에 뜻깊은 展示館의 문을 열게 되었다.  
 이날、紀念事業協會(會長 朴英俊) 主催로 이루어진 開館式에는 金信氏를 비롯한

### 白凡紀念館(內部)

遺族과 協會 會員、그리고 東京、韓國研究院 設立者인 崔書勉氏、學界의 元老、學生들이 多數 參席하여、白凡先生을 기리는 뜻을 더욱 새롭게 하였고、紀念式에 이어、紀念 講演會도 가졌다.  
 白凡金九先生은、安東金



氏 翼元公(諱 士衡)派로서 一八七六年(丙子)에 黃海道 海州의 白雲坊 터골에서 金淳永氏의 獨子로 태어났다. 나이 十八歲에 東學(天道教의 前身)에 入黨해서、一八九四年 東學革命 때는 海州의 先鋒將이 되는 등、일찍부터 民權鬪爭에 앞장섰고、一八九六年에는 安岳에서 日本軍 中尉를 殺害한 罪로、死刑宣告까지 받았으나、脫獄하여 全羅道 麻谷寺에서 중이 되었다가、故鄉에 돌아와서 學校를 建立하여 後進의 教育에 盡力하였으나、一九〇九年에는 安重根 義士의 伊藤博文 殺害 事件에 關聯되었고、이듬해에는 다시 安明根(安重根의 四寸)의 朝鮮總督 寺內正毅 暗殺未遂 事件에 連累되어 六年間의 獄苦를 치루었다.  
 一九一九年三、一運動 後로는 上海에 亡命하여 臨時政

拾萬圓	都評議公派	浩圭(日本)
參萬圓	翼元公派	康植(吉洞)
貳萬圓	按廉使公派	炳佑(新堂洞)
貳萬圓	大司成公派	在淳(弘恩洞)
壹萬圓	正儀公派	俸會(葛峴洞)
壹萬圓	(遂安人)	大鉉(盈德)
壹萬圓	都評議公派	浣秀(大邱)
壹萬圓	都評議公派	在文(大邱)
壹萬圓	翼元公派	榮淑(新林洞)
壹萬圓	都評議公派	元會(義城)
貳萬圓	大司成公派	泰玉(槐山)
貳萬圓	按廉使公派	在哲(旌善)

大司成公派  
**金 永 守**  
 大阪市 東成區 中本町 4丁目 2-8

日本  
 都評議公派  
**金 浩 圭**  
 宗敎 天道敎神戶敎區敎區長  
 西神戶居留民團常任顧問  
 義城玉山中學校名譽學長  
 義城玉山青鶴獎學會會長

電話: (〇七八)七三二二一三〇  
 (〇七八)七三二二二七八

## 公 告

풍성한 가을철을 맞이하여 宗親의 家庭마다 幸運이 깃드시기 祈願 합니다.  
 우리 派宗會에서는 꾸준한 努力으로 宗事를 遂行하고 있으며、特히 翼元公府君 齋舍는 建築年度가 오래 되고 管理의 悚忽 等으로 老朽의 形態로 倒壞의 危機에 到達하였으므로 重建의 宗議가 大作하여 이를 推進하여 오던 중、全國宗親의 뜨거운 聲援에 힘입어、지난 七月末頃부터 厨舍(管理者 住宅)의 建築을 着工하였고、繼續해서 本齋의 建築으로 이어 나갈 計劃으로 推進中에 있습니다.  
 그러나、建築費의 造成은 後孫의 重且 大한 義務임에도 不拘하고 尙今도 誠悭金의 納付가 未盡하여 難關에 逢着할 憂慮도 적지 않은 實情이오니、翼元公派의 모든 宗親께서는 다음을 參照하여 時急히 納付해 주시기 懇曲히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建立場所  
 楊平郡 楊西面 木旺里 翼元公 墓下
  2. 建築의 規模  
 가. 齋舍, 神道碑閣 厨舍(管理人 住宅) 建築, 建坪 70坪  
 나. 豫算 四千五百萬圓
  3. 獻誠金의 區分  
 가. 一般誠金: 世帶當 壹萬圓 以上 式  
 나. 特別誠金: 世帶當 五萬圓 以上  
 但, 特別誠金을 出捐하신 宗親은 短碑에 芳名을 鐫刻해서 永久히 紀念한다.
  - 다. 納付方法 및 納付方法  
 ○郵便對替口座를 利用하는 方法: 가까운 郵遞局에 가서 對替用紙를 交付받아 刻當事項을 記載, 拂入할 것.  
 口座番號: 011809-31-1516459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151-1  
 김 찬 곤  
 以上과 같이 公告합니다.  
 1986年 10月 10日 서울特別市 鍾路區 昌信洞 151-1  
 安東金氏翼元公齋室建立推進委員會  
 委員長 金在元 白 전화: 764-2743  
 \*翼元公 先祖, 今年 時享은 宗議에 依하여 陰10月2日(첫째 日曜日: 陽 11月2日)에 奉行함을 添伸 告知합니다.







# 消息

- ★世運興業社(세운상가)會長인 開城尹公派 宗親 慶浩氏는 지난 7月 1日附로 博川名譽郡守로 任命되었다.
- ★密直司使公派 宗親會에서는 多年間 宗務에 盡力하고, 家事形便으로 辭任한 會長인 沼氏 後任으로 大韓重機協會 總務部長 惠默氏를 選任하였다.
- ★密直司使公派 泰倫氏는 필리핀에 留學, 二年間 博士課程을 履修, 法學博士學位를 取得하고 歸國하여 江原大學校 經營大學 貿易學科 講師로 就任하였다.
- ★按廉使公派的 傘下組織인 《蒼梧會》에서는 지난 8月 10日에서 12日까지 4日間에 淸原郡 梧倉面 慕亭里 永齋齋에서 『家族講座』를 開催하고, 先祖의 略史와 日常生活의 禮節, 그 밖에 宗人에게 必要한 事項 等의 講義를 가져 많은 成果를 거두었다.
- ★獨立紀念館은 지난 9月 15日 下午에 『한국의 집』에서 第1次 理事會를 開催하고, 前交通部長官 金信(65·白凡先生 아들) 將軍을 初代理長으로 選任하였다.
- ★大宗會 常任副會長 崙會氏는 在美中인 아들 泰東·泰慶君 兄弟의 招請으로, 지난 7月 12日 出國, 美國 로스앤젤스와 시카고 等地를 巡訪하고, 많은 在美宗親들을 相逢하여 大宗會의 現況 等を 弘報하므로 宗親間의 親睦을 더욱 敦篤히 하였고, 在美宗親會 發起에 關한 事項 等を 協議하여 多大한 成果를 擧揚하고 지난 9月 26日 歸國하였다.
- ★“大宗會 理事會 秀秀(都評議公派) 宗親은 韓榮貿易(株) 副社長으로 日本去來處인 東芝메디칼(株)와 業務協議次 지난 7月 21日 出國하여 7月 28日 歸國하였다.
- ★淸州大學校 史學科 李相哲氏는 지난 6月에 『金方慶 研究』라는 論題로 碩士學位를 取得하였다. (論文은 次號부터 連載)
- ★都評議公派 赫秀 宗親은 지난 9月 25日에 施行한 公認會計士 試驗에 優秀한 成績으로 合格하였다.
- ★開城尹公派 宗親會(會長:會福)에서는 지난 10月 12日에 廣州郡 草月面 池月里 開城尹公壇所에, 男女後孫과 來賓 百餘名이 參班해서 秋季時享을 奉行하고 이어서, 初代會長으로서 많은 私財를 出捐해서 宗親會 育成에 貢獻이 至大한 賢潤氏의 功績碑 除幕式을 舉行하였다.

## 科技院 女性博士 1號 電算學專攻 金泰南 博士

### “六博士家族中막내의 역적!”

科學技術院에서 女性博士 第一號가 우리 宗門에서 誕生 하였다.

建設部計劃局長과 道路公社 副社長을 歷任한 工學博士 塔會(69·前大宗會 副會長)氏의 二男三女中 막내로 태어난, 泰南 博士는 故鄉인 慶北義城郡 點谷面 沙村洞이며 都評議公(諱 渭允)公은 大宗會 創立 當時 顧問으로서 至大한 功績을 남긴 분이기도 하다.

京畿女高와 延世大 數學科를 卒業한 泰南 博士는 今年 30歲로서 처음에 醫大를 志望할 생각이었으나, 女高에서 數學과 物理에 興味를 느끼게 되었고, 大學에 入學하고부터는 教育者가 되고자 敎職科目을 熱心히 工夫하였으나, 漸

次로 컴퓨터에 關心을 갖게 되었고, 四學年 때, 「數値解 釋」을 受講하므로서, 卒業後에 FACOM KOREA 社에 就職해서 相當한 待遇를 받았으나, 女性도 平生職業을 가져야 한다는 希望을 안고, 一年만에 退職, 一九七九年初에 大學院 課程인 科學技術院 進 山학과를 志願, 合格하여 八一年에는 碩士學位를 마쳤고, 그해 孟承烈氏와 結婚, 이어 五年半의 努力끝에 今番에 《병렬 그레프 알고리즘의 계산 구조》라는 論題의 논문이 通過, 工學博士學位를 取得했으며, 이는 科學技術院 開校 15년만에 女博士 第一號가 되었다.

塔會 博士의 家底을 남들은 博士家庭이라 한다. 土木工學



博士 아버지 塔會氏를 비롯해서 二女 泰珍(39)氏는 英文學 博士, 美國에서 大學 講義를 맡고 있는 長男 泰由(39)氏와 亦是 美國에서 포스트 博士課程을 밟고 있는 泰正(34)氏도 各各 博士學位를 取得하였으며, 泰南 博士의 夫君 孟承烈氏도 博士로서 現在 科學技術院 電算學科 助敎授이니 “六 博士”의 家庭이야말로 和氣에 가득차 있다.

한편 大邱에 居住하는 長女 珍氏도 무척 셈이 나는지, 「아이들을 다 키웠으니, 이제 부터 내 공부를 해야겠다」고 나서, 教育學 碩士 課程에 登錄하고, 博士 取得을 向해 발 벗고 나섰다.

또 泰南 博士는 이에서 그치지 않고, 「포스트 博士 課程을 밟을 수 있는 美國의 大學을 찾고 있다」고 하며, 돌아와서는 大學에서 講義를 하므로서, 당초에 “敎師가 되겠다던 꿈이 現實이 될 것이라”고 自信있게 말하고 있다.

# 歲享日程 (괄호안은 음력)

忠烈公諱方慶之墓	十一月 十日	慶北·安東郡祿轉面竹松洞陵洞
冷平國大夫夫人竹州朴氏之壇	十一月初九日	慶北·安東郡豐山邑檜谷洞
尚書公諱愼之壇	十一月初十日	慶北·安東郡豐山邑檜谷洞
文英公諱恂之墓	(三月初六日)	全南·康津郡鵠川面土馬里南山
忠肅公諱承用之壇	十一月 八日	京畿·安養市冠陽一洞 後山
文肅公諱永暉之壇	(十月初七日)	全南·康津郡鵠川面土馬里南山
福昌府院君諱永煦之壇	十一月 九日	忠南·天原郡並川面佳田里桃汀
評理公諱厚之壇	(十月初八日)	忠北·淸原郡梧倉面慕亭里
判慈惠院事公諱縝之壇	十一月 六日	全南·康津郡鵠川面土馬里南山
領三司事公諱蒞之壇	(十月初五日)	忠北·淸原郡梧倉面慕亭里
掌令公諱致之壇	十一月 四日	忠南·天原郡並川面佳田里桃汀
掌令公諱萇之壇	(十月初三日)	忠北·淸原郡梧倉面慕亭里
開城尹公諱七霖之壇	十一月 二日	忠南·燕岐郡全東面美谷里
郡事公諱七陽之墓	(十月初一日)	京畿·始興郡儀旺面浦一里廣谷山
典書公諱成牧之墓	陽三月第三日 曜日	京畿·廣州郡草月面池月里
大司成公諱九容之壇	陽十月第三日 曜日	京畿·廣州郡草月面池月里
都評議公諱九鼎之墓	(三月十六日)	全南·康津郡鵠川面土馬里南山
淑人牙山蔣氏之墓	十一月 四日	忠南·燕岐郡全東面美谷里
大護軍公諱儒之墓	(十月初三日)	京畿·抱川郡蒼水面可養里
提學公諱益達之壇	十一月 二日	京畿·抱川郡蒼水面可養里
按廉使公諱士廉之墓	(十月初一日)	慶北·義城郡義城邑業洞杏峴
翼元公諱士衡之墓	十一月 五日	慶北·義城郡點谷面西邊洞大岱
書雲觀正公諱綏之壇	(十月初四日)	全南·羅州郡金川面竹村里玉峙
	十一月 六日	忠南·天原郡並川面佳田里桃汀
	(十月初五日)	忠北·淸原郡梧倉面慕亭里
	十一月 二日	京畿·楊平郡楊西面木旺里
	(十月初一日)	京畿·始興郡儀旺面浦一里廣谷山



# 傳 說 栢谷先生的健忘症과 讀數記

栢谷先生的諱는 得臣이요, 字는 子公이니, 忠烈公諱方慶의 十四代孫이며, 高麗 禎王朝에 寶文閣 直提學을 지낸 諱 益達은 先生의 十代祖이다. 또 壬辰倭亂 때, 晉州城사 음을 슬기롭게 指揮하여 靑史에 燦爛한 빛을 남기고 戰死한 忠武公(贈 領議政, 上洛府院君) 諱 時敏은 祖父이고, 慶尙監司로서 《花山騎牛客》, 頭戴 一枝花)의 考終詩를 남기고 安東巡所에서 病死한 南峰先生(諱 敏)의 아들로서, 先生은 宣祖三十七年(一六〇四)에 忠清道 木川縣 栢田(至今 天原郡 並川面 佳田里)에서 出生하였으나, 幼時에 重한 痘疫를 앓고 부터, 性傷質魯의 狀態가 되어 記憶力이 愚鈍하고, 健忘症이 甚해져서, 家門의 敬重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다만不休의 努力으로 學文의 奧義를 擲得하고, 詩의 境地에서 헤아릴 수 없었던 많은 文蹟을 後世에 남겼다.

이러한 栢谷은 三十七歲 때, 비로소 進士試에 入格하였고, 增廣文科에 及第하기는 顯宗三年(一六六二)이었으나, 이때 栢谷은 五十七歲의 老境이었다. 이로써 그는 掌樂院正 知製教를 지냈고, 嘉善 大夫 同知中樞府事에 까지 올랐다. 언제나, 이러한 大文章家나, 賢人達士에게는 많은 逸話가 있고, 그 逸話는 世代를 따라 가며 傳說되는 법이니, 栢谷에 對한 傳說도 한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栢谷의 傳說의 逸話는 다른 先賢들과는 달리 健忘症에 대한 諸諱의 인이 야기가 主從이며, 그 諸諱의 內幕에는 그의 勤勉性과 初志一貫하는 執念의 表像으로 歸結되고 있다.

栢谷의 健忘症이 先天性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말한 바이지만, 그 健忘症은 大體 어느 程度였을까? 이제 그 逸話 몇가지를 추려 보기로 한다.

栢谷이 十歲 때, 南峰公에게 史略 天皇氏 編을 배우는 데, 二十六字를 三日間 배워 도 외우지 못하였다. 이를 본 外三寸 陸梅溪公이 「말은 그만 두는 것이 좋다」고 하였으나, 이에 對하여 南峰公은 「이 아이가 비록 이같이 어리석으나, 가르침을 바로 받고, 後日에 文章으로 이름을 날릴 것이다」라 하였다.

그런데 바로 이때의 일이다. 「太古라 天皇氏는 以木德으로 王하고」하면서, 史略을 읽고 있는데, 馬廐間에서 말 이 뛰어 나왔다. 栢谷은 곧바로 뛰어 가서 말을 잡아 옆에 있는 나무에 말고 배를 매면서 「왕」하고 문득 생각이 났다. 「아, 이것이 바로 木德王의 로구나」

이렇게 말한 栢谷은 매우 기뻐하였는데 王은 말에게 「뎡 주라」하는 「왕」으로 안 모양이다.

한번은 아버지 南峰公을 따라 野外로 나갔다. 때는 가을철이라, 五穀은 黃金빛을 띠어, 大陽에 反射되어 눈이 부시고, 시냇물은 소리 없이 흘러가는데, 다리 밑에는 살 전 물고기들이 자유로히 놀고 있었다.

「夢中(栢谷의 幼名) 아? 저 다리 밑에 노는 물고기 보고, 글 한번 지어보렴?」

南峰公은 어리석은 아들을 시험해 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脚下에 肉遊라」

栢谷은 「다리 밑에 고기가 놀고 있다는 말을 이렇게表

顯하였다. (脚下肉遊)나 (橋下魚遊)나 새겨보면 마찬가지로, 「다리 밑에 고기가 놀다」가 되는지라, 栢谷은 아는 글자만으로 脚下肉遊라 해서 또 한번 어리석음을 나타냈지만 南峰公의 생각에는 詩情은 있다고 느끼었다.

栢谷의 逸話中에서 가장 많이 傳波된 이야기는 寒食날 馬上市의 이야기이다.

어느 해 寒食날, 栢谷은 말을 타고, 省墓길을 떠났다. 이때는 벌써 栢谷이 많은 書冊을 읽었고, 詩에 能하다는 世評을 받고 있을 때이었다. 栢谷은 馬上에서 문득 五言詩 한 수가 머리에 떠올랐다. (馬上逢寒食이었다. 그러나 그對句가 생각나지 않아, 맞출 수가 없었다. 그저 馬上逢寒食만 되새기면서 苦吟하고 있었는데, 그 光景을 본 경마잡이 使童이 異狀이 생겼다고 불었다.

「선님은 무엇을 그렇게 苦吟하십니까?」

「이놈아, 네놈은 잘 모른다. 栢谷의 對答은 이 뿐이고, 또 馬上逢寒食만 되풀이 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恭遜히 蓋을 올리려는 利那에 문밖에서 구성진 벌레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祭床 넘어 屏風에는 나무가지에 새가 앉아있는 그림 한 폭이 눈에 띄었다. 이때 栢谷은 詩想에 興醉해 버렸다.

露草蟲聲濕  
風枝鳥夢危

「이슬 내린 풀잎에는 벌레 소리 젖어 있고, 바람 부는 나무가지, 새 잠 깨가 두려 위라」

獻辭할 술을 두손으로 받든 양 이러한 詩를 읊은 栢谷은, 詩興에 陶醉되어 祭祀를 擲得하였다는 執念이 巨大

는 웃지 못할 이야기이다. 이때, 栢谷은 무릎을 탁치고, 말에서 철석 내렸다. 「너 보아라, 내가 말을 타고, 너는 경마를 잡은 것은 내가 너보다 글을 좀 많이 알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보니 너의 詩才가 나보다 낫구나, 그러니 너는 말을 타고, 나는 경마를 잡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을 들은 使童은 또한 웃었다.

「선님? 이 처한 놈이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선님께서 서임하시는 글소리만 듣고 귀동냥으로 이것을 뵈었나이다」

이때 栢谷은 「혹지 그렇지 나...」하고 또 한번 무릎을 쳤다. 이것은 唐書에 있는 글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이러한 逸話의 眞否는 알바 없지만, 다만 傳說를 통해 그 本의 率直하고, 誇張없는 天性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오직 學文만을 尊崇하는 思想을 엿볼 수 있을 듯하다.

栢谷先生의 健忘症에 대한 이야기 하나를 더 해 보기로 한다.

어느 해, 親忌날이었다. 鷄鳴時가 다가오자, 祭廳에는 많은 參祭官이 序立해 있는 가운데, 栢谷은 床下에 跪坐하고 獻辭를 하기 위해 술잔을 반야 들었다.

그리고 恭遜히 蓋을 올리려는 利那에 문밖에서 구성진 벌레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祭床 넘어 屏風에는 나무가지에 새가 앉아있는 그림 한 폭이 눈에 띄었다. 이때 栢谷은 詩想에 興醉해 버렸다.

露草蟲聲濕  
風枝鳥夢危

「이슬 내린 풀잎에는 벌레 소리 젖어 있고, 바람 부는 나무가지, 새 잠 깨가 두려 위라」

獻辭할 술을 두손으로 받든 양 이러한 詩를 읊은 栢谷은, 詩興에 陶醉되어 祭祀를 擲得하였다는 執念이 巨大

는 웃지 못할 이야기이다. 또 栢谷은 이 이야기도 있다. 栢谷이 혼자서 酒를 가는데, 오른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왼손에는 담배대를 쥐고 가다 보니, 왼손이 뒤로 갈적마다 담배대가 보이지 않는다.

「내 내 어디 갔나?」

그라는 瞬間에 왼손이 앞으로 나온다.

「내 내 어디 있구나」

또 왼손이 뒤로 가니 담배대가 보이지 않는다.

「내 내 어디 갔나?」

왼손이 앞으로 나오자, 「내 내 어디 있구나」

이래서 終日가는 길에 계속해서 「내 내 어디 갔나?」 「내 내 어디 있구나」만 되풀이 했다는 이야기이다.

健忘症도 이쯤 되고 보면, 아마 世界記錄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아무리 健忘症이 甚하고 精神이 없다 하더라도, 너무나 程度에 넘친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다만 이러한 이야기의 지어낸 이야기 같지만 斷面에는 그 本에 健忘症의 尺度는 能히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

이러한 栢谷先生은 八十一歲의 長壽를 누렸고, 그 동안에 수많은 詩와 文蹟을 남겼으나 丙子胡亂에 兵燹됨이 많고, 그 後에 本第의 火災로 消失되고 남은 것을 모아 漢詩 千余首, 그리고 諸家의 序文·記文·誌·碣銘·祭文·上樑文等 많은 文章을 七卷으로 엮은 「栢谷集」의 大作을 남겼다.

그렇다면, 그렇게도 魯鈍하고 健忘症이 甚한 栢谷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도 大한 大作을 後世에까지 남길 수 있었는가? 이러한 疑訝心은 當然할지 모르나, 다만 自身の 어리석음과 健忘症을 自覺하고, 이를 克服하기 위해서는 多讀多書의 길을 擇해서, 文理를 擲得하였다는 執念이 巨大

한 傑作을 成就할 수 있었다는 事實이다. 多幸히 栢谷集의 末編에는 스스로 記錄한 《古文三十六首讀數記》가 있어 이를 紹介함으로써, 그 本의 勤勉性과 初志一貫한 精神을 알 수 있고, 後日의 成就 또한 믿으리라 생각된다.

○古文三十六首讀數記

獲麟解·師說·送高閑上人序·藍田縣承應壁記·送窮文·燕喜亭記·至鄧州北寄·上襄陽于相公書·應科日時與人書·送區冊序·張君墓碣銘·馬說·朽者·王承福傳 以上을 各一萬三千讀하고 鰐魚文을 一萬四千讀、鄭尚書書·送董都南序를 各一萬三千讀、十九日復上書를 一萬三千讀、上兵部李侍郎書、送珍道士序를 各一萬三千讀、龍說을 二萬讀 그리고 가장 많이 읽은 책은, 伯夷傳으로서 無慮一億一萬八千讀註·一億은 當時 計數單位며, 至今의 十萬인듯한)이나 된다. 또 孝子傳을 二萬讀、分王을 二萬讀、霹靂琴을 二萬讀、齊策을 一萬六千讀、凌虛臺記를 二萬五百讀、鬼神章을 一萬八千讀、衣錦章을 二萬讀、補亡章을 二萬讀、木假山記를 二萬讀、祭歐陽文을 一萬五千讀等이며, 그 밖에 一萬讀以下는, 이 讀數記에 記錄하지 않았다 한다.

특히 讀數記에 記錄된 많은 글 중에서 唯獨 伯夷傳만을 왜 一億一萬八千讀이나 하였을까? 이는 다만 그 伯夷傳에는 너무나 解釋이 어려운 대목이 많았기 때문이며, 이러한 難題를 解決하기 위해서 끈질긴 努力을 했고, 이로 말미암아 드디어 《伯夷傳解》를 自信있게 著述하기에 이르렀다.

《伯夷傳 多有未解處 學士大夫病之余抄書諸註解其疑》

(伯夷傳은 解釋하기 어려운데, 많이 있어, 士大夫가 배움에 근심하였다. 내 이제 그 註解의 疑問되는 곳을 추려

풀어 쓰노라) 하였으니, 栢谷은 그렇게 많은 讀數를 記錄한 것은 「栢谷先生은 健忘症이 甚한 분이 무는 才操로 讀數記를 쓸 수 있었나?」하고 讀數記의 眞實을 否定하는 傾向도 있었는 듯하다.

그러나, 이를 다시 생각할 때, 栢谷은 健忘症때문에 讀數記를 쓸 수 있었다고 보는데, 勿論, 그 讀數는 《書見》에 依한 計算되었을 것이고, 하루 讀數記를 比較할 때, 그 透徹懷疑는 없을 것이다 (끝)

(元榮 記)

按廉使公派  
翼元公派  
金 得 卿  
東豆川市 生淵一洞 五〇一

按廉使公派  
翼元公派  
金 泰 雄  
서울·東大門區新內洞四九五―四九九

大司成公派  
金 在 淳  
서울 特別市 西大門區 弘恩洞 362

按廉使公派  
金 昌 成  
서울·冠岳區 奉天五洞 四八五―三

按廉使公派  
金 昌 成  
서울·冠岳區 奉天五洞 四八五―三



本會報第11號第一面을 통해, 蘭雪軒詩碑除幕에 對한 記事를 簡略하게 揭載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五月에는 墓苑一帶가 京畿道 紀念物 第90號로 指定되어, 이를 保護, 管理하게 되었으니, 宗門의 多幸이 아닐 수 없다.

夫人의 姓은 許氏며 陽川人이니 諱가 楚姬, 字는 景燧이고 蘭雪軒은 그의 雅號라, 草堂 許曄의 따님이며, 西平君 韓叔昌의 外孫女이다.

草堂은 當代에 名聲 높은 文翰家로 世上에 널리 알려졌고, 벼슬이 副提學으로서, 省庵 金孝元·西厓 柳成龍 등과 交遊하고 뜻이 같아 東人의 領袖가 되었다.

草堂의 子女 六男妹中 蘭雪軒은 다섯째로 明宗 18年(一五六三) 癸亥에 出生하였고, 뒤로 荷谷 許紉과 아래로 洪吉童傳의 著者로 有名한 蛟山 許筠은, 蘭雪軒과 더불어 모두 典古大方 文章錄에 실려 있다.

특히 當時의 社會思潮는 女子의 學文을 必要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蘭雪軒은 五歲때 이미 詩才의 造詣가 깊어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움을 자아냈다.

바로 그 五歲때의 逸話 한 토막이 있다.

尤庵 宋時烈은 勢道宰相으로서 老論의 領袖였다. 尤庵은 中國에서 온 좋은 緋緞에 肖像을 그려서 族子로 만들고, 이를 草堂에게 보내서 頌題를 請하였다. 그러나 草堂은 신뜻 마음에 내키지 않았다. 높은 道學과 清廉한 南人의 氣質로는, 붓을 들바 못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잘못되면 家門에 禍가 미칠것을 생각하니 寢食이 달지 않았다.

그런데, 이 肖像에 異狀이 생긴것을 發見하기는 그로부터 數日後의 일이었다. 書架에 간직해 둔 族子에 누군가

# 軒雪蘭 詩人 流世의 稀世

가 「圖寫禽獸」라고 써버린 事實이다. 草堂은 楚姬의 子이고 바로 짐작하였지만 어찌 할 수 없는 일이었다. 草堂을 비롯해서 온 집안 식구는 愁心에 잠겼다. 서로가 政敵의 사이로 지내는 尤庵의 肖像에 「짐승을 그렸다」고 落書를 해버렸으니 그 報復은 家門에 만 미칠것이 아니라, 南人全體가 困境에 빠질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光景을 본 楚姬는, 다시 붓을 잡고, 「圖寫禽獸」에 한자씩 줄을 이어 써 내려갔다.

圖公之形 寫公之眞 禽中之鳳 獸中之麟

이를 본, 草堂은 무릎을 치면서 感嘆하였다. 그리고 安堵의 한숨을 쉬었다.

「公의 形像을 그리고, 公의 襟 모습을 밝았으니, 새 중에는 鳳凰이요, 짐승에 비하면 麒麟이로다」

참으로 훌륭한 頌題였다. 草堂은 글이 너무 過讚을 했다고 생각되었지만, 할 수 없는 일이라, 即時 尤庵에게 보냈더니, 尤庵은 大端히 滿足하였고 더욱이나 五歲의 少女가 이런 事實에는 더욱 놀랐다.

蘭雪軒은 八歲때, 廣寒殿白玉樓의 上梁文을 지어, 또 한번 世人을 놀라게 하였다.

述夫 寶蓋懸空 雲耕超 色相之界 銀接輝日 霞出迷塵之壺 雖復 仙螺運機 幼作碧瓦之殿 翠唇吹霧 嘯成玉樹之宮 青城丈人 玉帳之術 斯彈 碧海王子 金檀之方 畢施 自天作 作之非人力也(以下省略)

【譯】寶蓋는 하늘에 걸려 있고, 雲輪은 色相의 世界를 넘어섰도다/ 銀色宮殿은 太陽 빛에接했고, 霞林은 塵世를 떠난 궁이로다. 비록 仙螺의 運機가 다시 돌아오더라도 碧瓦의 殿堂만은 못하리라. 翠唇

이 안개를 뚫어 玉樹의 宮을 이루었으니 青城丈人이 玉帳의 才操로 이를 始古해서, 碧海王子의 金檀의 秘法으로 畢役하였으니 이는 스스로 하늘이 지은 것이요, 人力으로 된 것은 아니었으리라.

【註】寶蓋: 貴重한 布帳, 佛像을 가리는 日傘. 雲耕: 耕은 貴婦人이 타는 수레니, 그 耕이 구름같이 높다. 色相: 色은 丹靑해서 찬란한 기둥. 仙螺: 神仙이 造化를 일으키기 위해 부는 고동. 翠唇: 未成龍, 이 무기, 青城丈人: 靑女는 비를 내려주는 女神으로 靑女가 사는 城의 우두머리. 玉帳: 白雪이 玉의 장막과 같은 景致. 碧海王子: 碧海에는 神仙이 사는 열개의 섬(十洲)이 있는데 그 곳의 王子. 金檀之方: 金檀수 간직해 놓은 秘密의 方術.

蘭雪軒의 이러한 八歲作 上梁文은 明나라의 學者들까지도 「神作이지, 人作은 아니다」고 評을 하였다.

蘭雪軒이 西堂 金誠立에게 出嫁하기는 不過 十四歲의 어린 나이 때였다.

西堂은 安東金氏로서 高麗 때 書雲觀正을 지낸 綏의 七代孫이며, 李朝에 와서는 六代弘文과 四代湖堂의 名門으로 文翰의 大家이기도 하였다.

蘭雪軒은 天稟이 溫和하고 姿態가 優雅하였으며, 文章과 書法이 神出의 世評을 받으면서 뛰어났고, 그림 또한 奇巧의 極에 달하였으나, 두 男妹를 낳아서 모두 잃게 되고, 이어서 親家의 獄事로 同生 許筠의 甲山으로 流配되는 등, 悲運의 나날이 連續됨에 따라 衰切한 心情을 글로 달래다가 二十七歲의 꽃다운 나이에 世上을 떠나니, 卍가 宣祖 二十二年(一五八九·己丑) 三月二十七日이었고, 壬辰倭亂이 있기 三年前였다.

이렇게 짧은 生涯에도 불구하고 그는 能熟한 솜씨로 詩

은 作品을 남겼으나, 臨終期에 그 大部分을 스스로 消却해 버리고 남는 것이 많지 않았는데, 蛟山(均)이 姉氏의 애절한 生涯를 追慕하는 뜻에서 自身이 所藏한 分과 其外의 遺詩 二百餘首를 蒐集, 整理해 두었다니 宣祖 三十八年(一六〇六)에 中國 三文士의 한 사람인 朱之蕃이 使臣으로 왔다가, 이를 보고 感嘆하였고, 自國으로 돌아가서 比로 소 「蘭雪軒集」을 刊行하였는데, 이때 洛陽의 天地가 떠들썩하였고, 따라서 紙價까지 暴騰하였다. 朱之蕃은 다시 이를 評論하기를 「蓬萊山의 仙女가 朝鮮에 謫居하면서, 世俗에 未嘗지 않고, 珠玉같은 글을 남겨 놓아 그 感嘆한 香이 永遠토록 東洋에 飄은 感想을 널리 펼치고 있다」 하였다.

後孫들의 말에 의하면, 蘭雪軒의 詩와 이에 따른 이야기는, 여러 文獻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鶴山樵誌·西厓別集·芝峰類說·並谷詩話·西浦漫筆·靑莊館全書·燕岩集 등이 그 代表이며, 近代에도 李崇寧 著 「許夫人蘭雪軒」과 金東旭 著 「黃眞伊와 蘭雪軒」 등에서 이를 讚揚하고 있다.

또 中國에서도 錢謙益의 「列祖詩集」과 朱彝尊의 「明詩綜」 「兩朝平壤錄」 吳明濟의 「朝鮮詩選」 「古今女史雪堂雜俎」 등에 실렸다고 한다.

또, 一九二一年(辛亥)에는 日本의 文學家 文台屋次郎이 「蘭雪軒集」을 發刊함으로써 해서 日本學界에서도 有名하다.

이제 세상에 드문 女流詩人이요, 稀世의 天才詩人 蘭雪軒의 遺詩 몇首를 그 文集에서 추려 紹介할까 한다.

夜夜曲

蟬姑切切風颯颯 芙蓉香褪永輪高 佳人手把金錯刀 桃燈永夜縫征袍

玉漏微燈耿耿 羅帳寒 漏秋宵 永邊衣裁罷 煎刀冷 滿窓

## “蓬萊山仙女·朝鮮에 謫居·珠玉같은 文章 永遠한 感想” 評論

風動芭蕉影

【譯】

스르라미 소리 哀切하고, 바람소리 사나운데/ 蓮葉 香氣 사라지고, 등근 달만 높이 떠네/ 佳人의 손에는 금가위 잡고/ 燈불 켜진 밤에 征袍(軍服)을 짓네/

물시계 소리 희미하고, 燈불은 잠깐잠깐/ 비단 장막에는 찬기운 감돌고, 가을 밤은 길기도 하여라/ 님의 軍服 짓고나니 가위마저 차가운데/ 바람에 움직이는 芭蕉 그림자 窓門에 가득하다.

感遇

盈盈窓下蘭 枝葉何芬芳 西風一被拂 零落悲秋霜 秀色縱凋悴 清香終不斃 感物傷我心 涕淚沾衣裡 古宅書無人 桑樹鳴鶯 寒苔蔓玉砌 鳥雀栖空樓 向來車馬地 今成狐兔丘 乃知達人言 富貴非吾求 東家勢炎火 高樓歌管起 北隣貧無衣 枵腹蓬門裡 一朝高樓傾 反羨北隣子 盛衰各遞代 難可逃天理(以下省略)

【譯】

窓 밑에 가득한 蘭草, 枝葉은 왜 香氣로운가? / 西風이 하니, 내 마음마저 傷하여서 / 흐르는 눈물 옷소매 적시노라 / 옛 집에는 한낮에 사람이 없고, 뽕나무 가지에 부엉새 우네 / 옥같은 섬돌에는 차가 운 이끼만 엉키었고 빈 다락에는 새들만 사네 / 옛날에 車馬 다니던 곳에, 이제는 山頂승의 놀이터 되었네 / 이에 賢士의 金言, 알게 되었으니, 富貴는 내가 求할바 아니로다. / 東家는 불꽃같은 勢道집, 高樓에 風葉소리 요란해도 / 北村의 貧民은 입을 옷이 없고, 쓰러져 가는 집에서 주린 배 잡고 있지만 / 高樓도 一朝에

기울어지면, 오히려 北村 백성 부러우리라 / 盛衰는 때에 따라 遞代 있으니, 天理를 避하기란 어렵기도 하여라.

出塞曲

烽火照長河 天兵出漢家 枕戈服白雪 驅馬到黃沙 朔吹傳金柝 邊聲入寒笳 年年長結束 辛苦逐輕車(以下省略)

【譯】

옛날은 長江을 비추고, 天兵은 漢家를 떠났도다 / 鎗을 베개 삼아, 白雪위에 잠을 자며 / 말을 달리어 沙漠에 당도하니 / 부는 北風속에 金鐸소리 進軍命令 傳해 오고 / 邊方에서 胡笳소리 萬里長城, 넘어 오네 / 해마다 防備를 굳게 結束하였으니 / 이러한 辛苦가 오랑캐의 兵車를 쫓고 있노라

追興

我有一端綺 拂拭光凌亂 對織雙鳳凰 紋章何燦爛 幾年篋中藏 今朝持贈郎 不惜作君袴 莫作他人裳 精金凝寶氣 鑲作半月光 嫁時舅姑贈繫在紅羅裳 今日贈君行 願君爲羅帶 不惜棄道上 莫結新人帶

【譯】

나에게 한 끝 비단 있으니, 먼지 털고 주름 다려 손질했도다 / 마주 보는 한쌍의 鳳凰새, 緞는, 무늬가 어떻게 도 燦爛할 손가. / 몇해나 箱子속 에 간직한 것을, 오늘아침 郎君에게 드리웁니다 / 君子의 바지 지어 아까울손가, 他人의 치마만은 만들지 마오 / 精金에 보배 기운 엉키어 있고, 半月光彩 새겨진 이 노리개는 / 시집을 올 媳父母님 주신 거예요 / 붉은 비단 치마끈에 차고 있다가, 떠나시는 郎君에게 드리웁니다 / 원하건대 나 본뜻이 차고 계시오 / 길거리 에 버린다고 아까울손가? 만 女人의 허리띠엔 달지 마세요.

哭子

去年喪愛女 今年喪愛子 哀

【譯】

去年에 사랑하는 딸을 잃었고 今年에는 사랑하는 아들 잃으니 / 슬프다 / 廣州 땅 언덕 곁으로, 두 무덤 나란히 짓는단 말인가? / 白楊 버들 바람소리 소실도 한데, 도끼비 날아 무마다 밝혀 주누나 / 紙錢을 불태우며 너희 魂을 불러보고 / 清水(玄酒)를 무덤 앞에 부어 주나니 / 응당 알까 보나 男妹의 魂아, 밤마다 서서 쫓고 뛰며 노는가? / 비록 배속에 아이 있는들 어찌하여 네들보다 나올까 보나 / 헛되이 黃泉노래 불러 보나니, 피 눈물로 이름 불러 슬퍼하노라

위의 「哭子」에서 보는바와 같이 蘭雪軒은 두 男妹의 子女를 두었으나, 모두 一年사 이를 두고 잃게 되어, 그 後로는 그 悲痛한 心情을 오직 글로 달래고, 또 傳해 오는 말로는, 夫婦의 琴瑟이 不和云云하나, 夫婦有別의 綱倫이 嚴格한 當時이고, 더욱이 西堂公은 科試準備에 바빠 家庭을 돌볼 時間이 없었기에, 孤獨한 環境을 못 벗어난 生活의 狀態를 잘 傳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 證據는 「追興」의 題에서 찾아볼 수 있다.

追興은 西堂公이 科試次上 京한 後에 그 心情을 읊은 詩일 것이며, 그렇다면 이는 西堂公이 別試文科에 及第하던 宣祖 二十二年(一五八九) 己丑의 일이니 그 해 三月에 蘭雪軒은 世上을 떠나고 말았다.

따라서 이 追興의 題는 訣別의 詩이며, 詩 自体에도 永訣의 脈이 흐르고 있는 듯하다.

西堂公은 그 후에 承文院 正字를 거쳐 弘文館 著作으로 있을 때, 壬辰倭亂을 만나,

(六面に 계속)







(前號에서 계속)  
 따라서 日本征伐의 日程은 自然히 遲延되어 갔다.  
 日本에는 이미 三次나 使者가 건너갔음에도 不拘하고, 아무런 回答을 받지 못하게 되니, 世祖 후비라이도 決意를 征討의 軍을 일으킬 決意를 보이게 始作했다. 그러나 아직은 다시 한번 通交를 試圖해 보자는 뜻도 있어, 世祖는 和·戰 兩方의 準備을 하였다. 三別抄가 亂을 일으킨지 二七〇年 閏十一月에 世祖는 半島의 南端인 金州에 日本遠征의 基地로서 屯田을 設置하였다. 日本征討에 必要한 用兵을 農耕에 從事시키면서, 駐屯시키는 方法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趙良弼을 日本國信使로 任命하였다. 그는 女眞人으로서, 狹西路 宣撫使의 地位에 있었으나, 特選이 되어 趙良弼은 子린치, 王國王 洪茶丘等, 高麗에 駐屯한 蒙古將師 四十人과 함께 高麗를 向해 出發하여, 翼年(一二七二) 正月에 開京에 到着하였다.  
 그러나 趙良弼은 日本으로 出發할 旅程을 서둘지 않았다. 그것은 三別抄의 亂이 아직 鎮定되지 않아, 不안전한 때 문이기도 하지만, 이에 앞서 高麗에서는 日本이 蒙古에 臣屬할 것을 勸誘하는 國書를 보냈기 때문이기도 했다. 高麗의 立場으로서 日本征伐의 旗幟가 날릴 경우에 일을 犧牲은 너무나 클 것이라고豫想되었기 때문에, 한낱 方策으로 日本에 對하여 通交할 것을 勸告한 것이고, 趙良弼의 往復은 한 달이라도 늦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蒙古의 屯田 設置의 計劃은 大規模의 狀況으로 突入하였다.  
 三月달이 되면서 蒙古屯田 經略使인 忻都와 史樞等이 새로운 屯田 設置의 詔書를 가지고 高麗에 왔다. "屯田은 王京(開京)·東寧府(平壤)·鳳州(黃海道 鳳山) 등의 十個所에 設置하고 經略使는 鳳州에 두라"는 內容의 詔書였다. 高麗가 蒙古屯田에 必要한 農耕地를 提供하는 일만도 여간 苦痛이 아니었다. 그러나 世祖의 要求는 그 외에도 三千頭의 農牛와 農具, 種子 그리고 심지어 馬糧(芻秣)의 全部와 秋收期까지 屯田兵 六千名의 軍糧補給이란 큰 負擔을 저야만 했다. 다만 農牛의 代價라 하고 비단 一萬二千三百五十匹을 받았으나, 困窮에 빠져있는 高麗로서는 所用없는 物件에 지나지 않았다. 이 當時에 全羅道 地方의 農民들

은 草根本皮로 겨우 殘命을 이어가는 形便이니까... 高麗에서 보낸 牒狀은 九月初에 가마쿠라(鎌倉)의 幕府를 거쳐서 京都朝廷에 回送되어, 日本의 閣僚들은 連日 評定의 公論이 거듭되었고, 이 때가 바로 趙良弼의 一行이 金州에서 發船한 時期였다(趙良弼은 九月六일에 金州를 떠났다). 九月十三일에 幕府에 서는 九州의 御家人 等에게 命하여 "海防을 嚴重히 하라"하고, "九州의 所領을 떠나 있는 者는 速히 九州로 돌아와서 大宰府 守護人의 指揮를 받으라"고 指令을 내렸다.  
 그달 十九일에 趙良弼의 一行은 芝浦(筑前)의 이마즈

# 日本史에서 본 東征記

~ 2 ~

十一月十六일에 國號를 세워 "元"이라 하였다. 한편, 高麗에서는 叛亂을 일으켜 濟州島에 潛入한 三別抄도 이제는 完全히 討平하였고, 世祖는 日本征伐의 計劃이 本格化한 것이었다.  
 大宰府에서는 趙良弼의 要求를 無條件 拒絶하였다. 그러나 趙良弼은 強力한 態度로 "京都에 가서, 日本國王과 幕府의 大將軍을 直接 만나게 하라"고 頑強히 우기면서, "國王을 못 만나게 한다면 이 趙良弼의 목이라도 가지고 가라"고 의쳤다. 그리고, 趙良弼은 그 國書는 絕對로 進내주지 않았다. 다만 寫本만을 보이면서 "十一月中으로 回答하라"고 要求했다. "만약에 그래도 回答이 없다면 兵船의 出動이 있을 따름이다"고도 해보았다.  
 國書의 寫本은 十月下旬에 幕府에서 朝廷에 進奏 되었으나, 이 또한 結果는 없었다.  
 翌年 正月에 趙良弼은 高麗로 歸還했으나, 그는 高麗에 滯留하면서, 그의 書狀官인 張鐸에게 日本에서 連行한 彌四郎等 十二名의 日本人을 말려, 蒙古에 보냈다. 그러나 世祖는 日本人의 朝見을 許諾하지 않음으로, 四月에 張鐸은 彌四郎等을 메리고 開京에 돌아왔고, 얼마 후에, 趙良弼과 張鐸은 다시 日本으로 건너가서 約 一個月 동안 머물다가 돌아 왔다.  
 日本에서 돌아 온, 趙良弼은 그해(一二七三) 五月에 世祖를 謁見하였다. 이 자리에서 趙良弼은 日本 君臣의 辭號·州郡의 名稱과 그 數, 그리고 風俗 等を 詳細히 文書로 報告하였고, 이때, 世祖는 "君命을 辱되게 하지 않았다" 하였다.  
 後日에 日本遠征을 決行할 때, 趙良弼은 世祖의 諮問에 答하기를, "日本은 山巒인 野蠻의 심 나라이온데, 犧牲을 무릅쓰고, 征伐을 할 必要가 없나이다"라 하였다.  
 蒙古는 그 前年(一二七一)

參加하는 疑問도 없지 않았다. 當時의 封建領主라 하는 것은 自身이 차지하고 있는 領土의 守護에 對해서는 全力을 다했지만, 國家大事라 하는 큰 問題에 逢着하면, 目前에 敵이 나타나고, 將軍으로 부터 懸賞이 걸리지 않은 限, 宗親로 活動에 熱을 올리지 아니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幕府로서는 번번히 強力한 督促으로 御家人을 出動시켰고, 얼마 후에 "敵軍上陸"이란 말을 듣고도 出動에 忌避하려는 者까지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緊迫한 狀況에서라도 幕府로서는 大軍을 九州로 派遣할 수 없는 지경이 될만치 重大한 事件이 벌어졌다.  
 幕府의 中樞가 되는 北條氏의 内部에서 同族間의 血戰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도키스게(北條時輔)는 執權者인 도키무네(時宗)의 異腹兄인데, 그 때, 南六波羅探題라는 要職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正室의 아들이라는 理由로 時宗에게 家督相續을 承襲할 怨恨을 품고, 秘密裡에 謀叛을 企圖하고 있었다.  
 一二七二年 二月 十一일에 時宗은 오쿠라(大倉賴季)로 하여금, 時輔의 謀叛計劃에 加擔한 나고야(名越教時)와 센바(仙波盛直) 등을 鎌倉에서 殺害해 하였다. 이때, 노리도키(教時)의 兄, 도키야카(時章)는 謀叛에 參與한 것은 아니었는데 失手로 誤認되어 被殺된 것이었고 그들을 죽인 討手의 놈들은 問罪되어 모두 斬殺되었다.  
 그리고, 그달 十五日에는 時宗의 謀叛의 遺骸를 淨金剛院의 涅槃講이란 行事가 있어 매우 분비고 繁盛하였다. 바로 이 時期에 鎌倉에서 早馬의 部隊가 到着하였고 로꾸하라(六波羅)의 北方에 있는 요시무네(北條義宗)는 直時에 南方에 있는 時輔를 襲擊했다. 別안간에 六波羅에는 불기둥

이 올라가고, 在京의 武士들은 빠짐없이 달려가, 猛焰속 에 뛰어들어 血戰이 벌어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時輔는 戰死하였다고 하며 或說에는 時輔가 逃亡을 해서, 吉野方面으로 갔는데, 그 後 行方不明이 되었다고도 한다. 이를 日本의 歷史에서는 "二月 騷動"이라 하고 있다.  
 이러한 二月騷動은 單純한 兄弟間에 벌어진, 怨恨의 싸움은 아니었다. 이는 宗系權力의 強化가 介在된, 深刻한 問題가 있기 때문에, 宗系相續者인 時宗로서는 언제나 뒤에서 겨루는 叛逆의 火살을 恒時 警戒해야 했고, 先手를 치지 않으면 그 強大한 權力을 維持하기 어려웠다.  
 當時, 日本의 國家形態는 天皇을 中心으로 한 朝廷이 있지만, 모든 實權은 幕府에서 잡고 있으며 地方에는 많은 다이묘(大名)라는 封建領主들이 領土爭奪의 싸움을 벌리고 있었고, 그 領主들은 恒常 緊張感에 젖어 있으니, 特別히 宗系權力의 強化에 餘念이 없는 時宗으로 바서는 더욱 非常한 警戒을 게을리 할 수 없는 바이었다.  
 이러한 條件의 밑에서 關東의 大軍을 九州로 보내서 駐屯시키는 일들은 가령 생각이 있어도 할 수 없는 狀況이었고, 또 地方의 領主들도 마찬가지로, 遠隔의 戰線에 가기를, 躊躇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幕府에서 異敵의 侵入이라는 큰 問題를 두고, 一 大騷動을 벌리고 있을 때, 한편으로는 佛徒間의 派爭이 일어나고 있었다.  
 法華經만을 信奉하는 高僧에 日蓮이 있었다. 그는 異敵에 대한 防備의 強化보다는 오히려 "邪宗의 折伏"을 의치면서 "國難이 있는 것은 邪宗의 盛行" 때문이라 하여 大衆에게 危機의 不安감을 鼓吹시키고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元榮記)

이러한 疑問도 없지 않았다. 當時의 封建領主라 하는 것은 自身이 차지하고 있는 領土의 守護에 對해서는 全力을 다했지만, 國家大事라 하는 큰 問題에 逢着하면, 目前에 敵이 나타나고, 將軍으로 부터 懸賞이 걸리지 않은 限, 宗親로 活動에 熱을 올리지 아니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幕府로서는 번번히 強力한 督促으로 御家人을 出動시켰고, 얼마 후에 "敵軍上陸"이란 말을 듣고도 出動에 忌避하려는 者까지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緊迫한 狀況에서라도 幕府로서는 大軍을 九州로 派遣할 수 없는 지경이 될만치 重大한 事件이 벌어졌다.  
 幕府의 中樞가 되는 北條氏의 内部에서 同族間의 血戰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도키스게(北條時輔)는 執權者인 도키무네(時宗)의 異腹兄인데, 그 때, 南六波羅探題라는 要職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正室의 아들이라는 理由로 時宗에게 家督相續을 承襲할 怨恨을 품고, 秘密裡에 謀叛을 企圖하고 있었다.  
 一二七二年 二月 十一일에 時宗은 오쿠라(大倉賴季)로 하여금, 時輔의 謀叛計劃에 加擔한 나고야(名越教時)와 센바(仙波盛直) 등을 鎌倉에서 殺害해 하였다. 이때, 노리도키(教時)의 兄, 도키야카(時章)는 謀叛에 參與한 것은 아니었는데 失手로 誤認되어 被殺된 것이었고 그들을 죽인 討手의 놈들은 問罪되어 모두 斬殺되었다.  
 그리고, 그달 十五日에는 時宗의 謀叛의 遺骸를 淨金剛院의 涅槃講이란 行事가 있어 매우 분비고 繁盛하였다. 바로 이 時期에 鎌倉에서 早馬의 部隊가 到着하였고 로꾸하라(六波羅)의 北方에 있는 요시무네(北條義宗)는 直時에 南方에 있는 時輔를 襲擊했다. 別안간에 六波羅에는 불기둥

이러한 疑問도 없지 않았다. 當時의 封建領主라 하는 것은 自身이 차지하고 있는 領土의 守護에 對해서는 全力을 다했지만, 國家大事라 하는 큰 問題에 逢着하면, 目前에 敵이 나타나고, 將軍으로 부터 懸賞이 걸리지 않은 限, 宗親로 活動에 熱을 올리지 아니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幕府로서는 번번히 強力한 督促으로 御家人을 出動시켰고, 얼마 후에 "敵軍上陸"이란 말을 듣고도 出動에 忌避하려는 者까지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緊迫한 狀況에서라도 幕府로서는 大軍을 九州로 派遣할 수 없는 지경이 될만치 重大한 事件이 벌어졌다.  
 幕府의 中樞가 되는 北條氏의 内部에서 同族間의 血戰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도키스게(北條時輔)는 執權者인 도키무네(時宗)의 異腹兄인데, 그 때, 南六波羅探題라는 要職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正室의 아들이라는 理由로 時宗에게 家督相續을 承襲할 怨恨을 품고, 秘密裡에 謀叛을 企圖하고 있었다.  
 一二七二年 二月 十一일에 時宗은 오쿠라(大倉賴季)로 하여금, 時輔의 謀叛計劃에 加擔한 나고야(名越教時)와 센바(仙波盛直) 등을 鎌倉에서 殺害해 하였다. 이때, 노리도키(教時)의 兄, 도키야카(時章)는 謀叛에 參與한 것은 아니었는데 失手로 誤認되어 被殺된 것이었고 그들을 죽인 討手의 놈들은 問罪되어 모두 斬殺되었다.  
 그리고, 그달 十五日에는 時宗의 謀叛의 遺骸를 淨金剛院의 涅槃講이란 行事가 있어 매우 분비고 繁盛하였다. 바로 이 時期에 鎌倉에서 早馬의 部隊가 到着하였고 로꾸하라(六波羅)의 北方에 있는 요시무네(北條義宗)는 直時에 南方에 있는 時輔를 襲擊했다. 別안간에 六波羅에는 불기둥

이러한 疑問도 없지 않았다. 當時의 封建領主라 하는 것은 自身이 차지하고 있는 領土의 守護에 對해서는 全力을 다했지만, 國家大事라 하는 큰 問題에 逢着하면, 目前에 敵이 나타나고, 將軍으로 부터 懸賞이 걸리지 않은 限, 宗親로 活動에 熱을 올리지 아니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幕府로서는 번번히 強力한 督促으로 御家人을 出動시켰고, 얼마 후에 "敵軍上陸"이란 말을 듣고도 出動에 忌避하려는 者까지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緊迫한 狀況에서라도 幕府로서는 大軍을 九州로 派遣할 수 없는 지경이 될만치 重大한 事件이 벌어졌다.  
 幕府의 中樞가 되는 北條氏의 内部에서 同族間의 血戰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도키스게(北條時輔)는 執權者인 도키무네(時宗)의 異腹兄인데, 그 때, 南六波羅探題라는 要職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正室의 아들이라는 理由로 時宗에게 家督相續을 承襲할 怨恨을 품고, 秘密裡에 謀叛을 企圖하고 있었다.  
 一二七二年 二月 十一일에 時宗은 오쿠라(大倉賴季)로 하여금, 時輔의 謀叛計劃에 加擔한 나고야(名越教時)와 센바(仙波盛直) 등을 鎌倉에서 殺害해 하였다. 이때, 노리도키(教時)의 兄, 도키야카(時章)는 謀叛에 參與한 것은 아니었는데 失手로 誤認되어 被殺된 것이었고 그들을 죽인 討手의 놈들은 問罪되어 모두 斬殺되었다.  
 그리고, 그달 十五日에는 時宗의 謀叛의 遺骸를 淨金剛院의 涅槃講이란 行事가 있어 매우 분비고 繁盛하였다. 바로 이 時期에 鎌倉에서 早馬의 部隊가 到着하였고 로꾸하라(六波羅)의 北方에 있는 요시무네(北條義宗)는 直時에 南方에 있는 時輔를 襲擊했다. 別안간에 六波羅에는 불기둥

이러한 疑問도 없지 않았다. 當時의 封建領主라 하는 것은 自身이 차지하고 있는 領土의 守護에 對해서는 全力을 다했지만, 國家大事라 하는 큰 問題에 逢着하면, 目前에 敵이 나타나고, 將軍으로 부터 懸賞이 걸리지 않은 限, 宗親로 活動에 熱을 올리지 아니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幕府로서는 번번히 強力한 督促으로 御家人을 出動시켰고, 얼마 후에 "敵軍上陸"이란 말을 듣고도 出動에 忌避하려는 者까지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緊迫한 狀況에서라도 幕府로서는 大軍을 九州로 派遣할 수 없는 지경이 될만치 重大한 事件이 벌어졌다.  
 幕府의 中樞가 되는 北條氏의 内部에서 同族間의 血戰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도키스게(北條時輔)는 執權者인 도키무네(時宗)의 異腹兄인데, 그 때, 南六波羅探題라는 要職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正室의 아들이라는 理由로 時宗에게 家督相續을 承襲할 怨恨을 품고, 秘密裡에 謀叛을 企圖하고 있었다.  
 一二七二年 二月 十一일에 時宗은 오쿠라(大倉賴季)로 하여금, 時輔의 謀叛計劃에 加擔한 나고야(名越教時)와 센바(仙波盛直) 등을 鎌倉에서 殺害해 하였다. 이때, 노리도키(教時)의 兄, 도키야카(時章)는 謀叛에 參與한 것은 아니었는데 失手로 誤認되어 被殺된 것이었고 그들을 죽인 討手의 놈들은 問罪되어 모두 斬殺되었다.  
 그리고, 그달 十五日에는 時宗의 謀叛의 遺骸를 淨金剛院의 涅槃講이란 行事가 있어 매우 분비고 繁盛하였다. 바로 이 時期에 鎌倉에서 早馬의 部隊가 到着하였고 로꾸하라(六波羅)의 北方에 있는 요시무네(北條義宗)는 直時에 南方에 있는 時輔를 襲擊했다. 別안간에 六波羅에는 불기둥

이러한 疑問도 없지 않았다. 當時의 封建領主라 하는 것은 自身이 차지하고 있는 領土의 守護에 對해서는 全力을 다했지만, 國家大事라 하는 큰 問題에 逢着하면, 目前에 敵이 나타나고, 將軍으로 부터 懸賞이 걸리지 않은 限, 宗親로 活動에 熱을 올리지 아니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幕府로서는 번번히 強力한 督促으로 御家人을 出動시켰고, 얼마 후에 "敵軍上陸"이란 말을 듣고도 出動에 忌避하려는 者까지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緊迫한 狀況에서라도 幕府로서는 大軍을 九州로 派遣할 수 없는 지경이 될만치 重大한 事件이 벌어졌다.  
 幕府의 中樞가 되는 北條氏의 内部에서 同族間의 血戰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도키스게(北條時輔)는 執權者인 도키무네(時宗)의 異腹兄인데, 그 때, 南六波羅探題라는 要職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正室의 아들이라는 理由로 時宗에게 家督相續을 承襲할 怨恨을 품고, 秘密裡에 謀叛을 企圖하고 있었다.  
 一二七二年 二月 十一일에 時宗은 오쿠라(大倉賴季)로 하여금, 時輔의 謀叛計劃에 加擔한 나고야(名越教時)와 센바(仙波盛直) 등을 鎌倉에서 殺害해 하였다. 이때, 노리도키(教時)의 兄, 도키야카(時章)는 謀叛에 參與한 것은 아니었는데 失手로 誤認되어 被殺된 것이었고 그들을 죽인 討手의 놈들은 問罪되어 모두 斬殺되었다.  
 그리고, 그달 十五日에는 時宗의 謀叛의 遺骸를 淨金剛院의 涅槃講이란 行事가 있어 매우 분비고 繁盛하였다. 바로 이 時期에 鎌倉에서 早馬의 部隊가 到着하였고 로꾸하라(六波羅)의 北方에 있는 요시무네(北條義宗)는 直時에 南方에 있는 時輔를 襲擊했다. 別안간에 六波羅에는 불기둥

초정밀 특수사출  
금형 설계 제작

## 二 雄 精 密

代表 金 堂 秀  
(都評議公派)

서울: 特別市 九老區 加里峰洞 345  
(韓國輸出産業工團第3團地 內)

## 世原商工社

代表 金 昞 佑  
(按廉使公派)

서울: 中區 新堂洞 432-1645  
電話: 234-4489 · 234-7878

## 通園車運行

## 금강유치원

園長 金 康 植  
(翼元公派)

서울: 江東區 吉洞 395-1  
電話: 482-6580 · 478-0065



# 三別抄 (4)

## 條理 있는 崔忠獻의 出現 等 忠粹까지 擊殺權座에

최충헌(崔忠獻)은 삼장군 최원호(元浩)의 아들로서 본관(本貫)은 우봉(牛峰)이었다. 그는 경계의 난(庚癸之亂)에 가담해서 공을 세우고, 별초도령(別抄都令)에 등용되고, 이어서 삼장군(攝將軍)이 되었다.

명종 二六(一一九六)에는 그의 아우 충수(忠粹)와 이(李)의 사이(李至榮)의 사이에 있던 사감(私憾)이 계기가 되어서 충수의 권유로 말미암아, 당시의 권신(權臣)인 이의민을 미타산(彌陀山)에 있는 그의 별장(別莊)을 습격해서 죽인 뒤, 이어서 군사를 모아 이의민의 아들 지순(至純)·지광(至光)의 가병(家兵)을 몰리치고, 명종을 움직여서 이의민의 삼족(三族)과 그 일당을 모조리 잡아 죽였다.

이렇게 이의민의 권좌(權座)를 무너뜨린 최충헌은 확고한 독재자의 지위를 구축하여 무려 二십四年 동안 위복을 누렸고, 당시는 국왕조차도 최충헌의 명령에 추종할 수밖에 없는 허수아비의 불과 하였다.

최충헌의 독재정권은 끝까지 이를 확보하여 四代(代)六십년간 지속되었다. 최충헌이 정적(政敵)인 이의민의 잔당을 몰리치고 기를 이 확고해지자, 그의 아우 최충수와 뜻을 같이하고 생질인 대정(隊正) 박진재(朴晉材)와 그 족당(族黨)인 노석승

은 석의 아들인 장군 홍윤(洪胤)을 모두 죽이게 하고, 이경유는 심문도 없이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버렸다. 그리고 최충헌은 그 길로 거리에 나가서, 권절평·손석·권운(權允)·유삼상(柳森相)과, 아사중승(御史中丞) 최혁운(崔赫尹) 등을 직접 잡아 죽였다.

그 때, 수창궁(壽昌宮)에 있던 길인(吉仁)은, 이 소식을 듣고, 장군 유광(俞光)·박공승(朴公襲) 등과 함께 무기고의 병기를 꺼내어, 금군(禁軍)과 환관(宦官)의 노예 친역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 르기를,

「지금 최충헌이 난을 꾸미러서 무고한 사람을 마구 죽이니, 화는 장차 너희에게도 미칠 것이다. 너희들은 마땅히 힘을 합해서 싸워 큰 공을 세워야 한다.」

하고, 무리를 이끌고 궁문을 나와, 최충헌을 향해 도전하였고, 최충헌은 이들을 맞아 싸울 때, 결사대 친역들을 선발해서 선봉을 삼아 칼을 휘두르며 진격하니, 길인의 군사들은 겁에 질려, 사방으로 흩어지고, 길인이나 유광·박공승 등은 수창궁으로 도망가서 문을 굳게 닫아 걸고 숨어버렸다. 그러나, 최충헌은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고, 두 잡아 죽였다.

그러나, 국왕인 명종은 자신들이 응립한 임금이 아닌데, 로 해서 아직도 구신(舊臣)과 숙장(宿將)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최충헌이 정치를 두 단(獨斷)함에는 지장이 많아 눈에 가시처럼 생각되며, 때로 들리는 말에는, 「구신과 숙장들이 자기를 해치려 한다. 고 할뿐 아니라, 명종은 때때로 충군의 무리에게 금은(金銀)이나 비단을 하사하는 사례도 있었기에, 최충헌의 형제는 마침내 명종의 폐립을 결심하였다.

명종 二七(一一九七)九月 二日 일요일에 최충헌은 그의 아우 최충수, 생질 박진재와 더불어 군사를 시가의 요소에 배치시키고, 장졸들로 하여금 각 성문을 봉쇄하고는 두경승(杜景升) 등 삼명의 중신과 대신사(大禪師) 연담(淵潭) 등 심역명의 승려 및 소군(小君)과 홍기(洪機) 등 심역명을 귀향보낸 다음에, 왕(明宗)을 창락궁(昌樂宮)에 유배하고, 태자도(濤)는 강화도로 보낸 다음, 평랑공(平涼公) 민(旻)을 왕위에 올림하니 이가 제 二십대 신종(神宗)이었다.

이렇게 전격적인 행동으로 신종을 올림한 최충헌은 다 시 왕에게 알리고 민(旻)·(閔)·(閔) 등 七십 여명을 내쫓고 추밀원사(樞密院事) 최연(崔璉)을 귀양 보냄으로써, 그 위는 더욱 굳어지고, 정권은 최씨 일가의 독무대가 되었다.

이 폐립의 논공(論功)에서 최충헌은 정국공신 삼한대판(三韓大版) 주국(靖國功臣) 三韓大臣 大中大夫 上將軍 柱國이 되고, 최충수는 수성세판공신 삼한정판 중대부(守成世版公신 삼한정판 중대부) 양양군 대장군 위위정 지도(襄陽郡 大將軍 衛尉正 知地)도 상사 주국(輪誠 濟亂功臣) 三韓正匡 中大夫 鷹揚軍 上將軍 衛威卿 知都省事 柱國)이란 엄청난 작(爵)을 받았다.

그러나, 세도나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최충헌의 아우 최충수는 그 지위를 형의 위에 올리고 저하여, 그 딸을 태자비(太子妃)로 세울 것을 꾀하였으나, 태자에게는 이미 금슬이 좋은 비가 있어서, 왕이 이를 꺼리자, 최충수는 강제로 태자비를 궁밖으로 내쫓고 자신의 딸을 일컬어 시킬 것을 계획하고 이를 단행하려 하였다. 이때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최충헌은 최충수를 찾아 가서 조용히 그 부당함을 타 일렸다.

「지금 우리 형제의 세도가 오로지 국권을 마음대로 주름잡고 있으나, 본래는 우리의 지체가 변변치 못한 집안이다. 만약에 내가 네 딸을 동궁비로 들인다면 세상이 조용한 것인가? 또 부부간이란 오랫동안 정이 있는데, 어찌 일조 일석에 배어 버리는 것을 인정해 맞는 처사라 할 수 있겠나?」

이 말을 듣고 난, 최충수는 그 자리에서는 「그 말이 옳다.」는 듯한 태도로 반응을 보이지는 못하였으나, 시간이 경과된 얼마 후부터 최충수는 공장(工匠)들을 모아 여러 대대적으로 혼사준비를 서둘렀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형의 말에 따르면, 최충수는 어머니의 말도 아랑곳 없이, 폭력으로 계획을 단행하였고, 이 에 분개한 최충헌은 「이제는 말로 달랠 시기는 지났다」 하고, 부득이 무력으로라도 이를 제지하기 위해 「동생의 이러한 고집은 그 자신이 왕위를 노리는 저의라 생각된다.」 하여, 그의 생질 박진재 등과 파모의한 후, 기선을 잡기 위해 밤을 이용해서, 친역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왕궁으로 들어가서는 국왕의 허락을 받아 무기고에 소장된 병기를 풀어 왕궁의 호위병을 모두

무장시켜 자기편을 만들자, 모든 장군이 차례로 최충헌의 편에 몰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불리함을 스스로 깨달은 최충수는 부하를 모두 해산함으로써 싸움에 응하지 않을 뜻 보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최충수의 휘하장군들이 「비겁한 행동이라 하며 말을 듣지 않게 되어, 피차 수천의 병력이 치열한 시가전을 벌였고, 이 싸움에서 최충수의 군사들은 사면으로 포위되어 마침내 패하고, 최충수는 도망쳐서 임진강을 건너, 파평(坡平)에 있는 금강사(金剛寺)까지 달아났으나, 추격군에 잡혀 죽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최충헌은 권세를 에워싼 형제간의 싸움까지도 끝내고 보니, 이제 군국의 대권을 독점하게 되었으나, 무신들의 반발은 독재자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았다. 특히 그의 생질이며, 오래 동안 참모격으로 일해왔고, 모든 거사에는 선봉으로 활약한 박진재까지 날래고 사나워서 많은 문책을 기르면서, 최충헌에게 대항하는 기세를 보이게 되자, 최충헌은 즉시 이를 잡아들여 다리를 꺾고, 백령도로 귀양 보냈는데, 박진재는 얼마 후에 그곳에서 죽고 말았다.

최충헌은 모든 정적을 몰리치고, 오직 독무대에서 대권을 휘둘렀으나, 그 정치는 백성의 부리에 미치지 못하였고 각 지방에서는 계속된 역모와 민란이 빈번하였다. 그 중에서도 최충헌의 사동(私僮)에 만적(萬積)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만적이야말로 노비 해방의 기치(旗幟)를 높이 들고, 민중을 선동해서 지

「지금 우리 형제의 세도가 오로지 국권을 마음대로 주름잡고 있으나, 본래는 우리의 지체가 변변치 못한 집안이다. 만약에 내가 네 딸을 동궁비로 들인다면 세상이 조용한 것인가? 또 부부간이란 오랫동안 정이 있는데, 어찌 일조 일석에 배어 버리는 것을 인정해 맞는 처사라 할 수 있겠나?」

「지금 우리 형제의 세도가 오로지 국권을 마음대로 주름잡고 있으나, 본래는 우리의 지체가 변변치 못한 집안이다. 만약에 내가 네 딸을 동궁비로 들인다면 세상이 조용한 것인가? 또 부부간이란 오랫동안 정이 있는데, 어찌 일조 일석에 배어 버리는 것을 인정해 맞는 처사라 할 수 있겠나?」

이렇게 해서 최충헌은 권세를 에워싼 형제간의 싸움까지도 끝내고 보니, 이제 군국의 대권을 독점하게 되었으나, 무신들의 반발은 독재자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았다. 특히 그의 생질이며, 오래 동안 참모격으로 일해왔고, 모든 거사에는 선봉으로 활약한 박진재까지 날래고 사나워서 많은 문책을 기르면서, 최충헌에게 대항하는 기세를 보이게 되자, 최충헌은 즉시 이를 잡아들여 다리를 꺾고, 백령도로 귀양 보냈는데, 박진재는 얼마 후에 그곳에서 죽고 말았다.

최충헌은 모든 정적을 몰리치고, 오직 독무대에서 대권을 휘둘렀으나, 그 정치는 백성의 부리에 미치지 못하였고 각 지방에서는 계속된 역모와 민란이 빈번하였다. 그 중에서도 최충헌의 사동(私僮)에 만적(萬積)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만적이야말로 노비 해방의 기치(旗幟)를 높이 들고, 민중을 선동해서 지

최충헌의 아우 최충수는 그 지위를 형의 위에 올리고 저하여, 그 딸을 태자비(太子妃)로 세울 것을 꾀하였으나, 태자에게는 이미 금슬이 좋은 비가 있어서, 왕이 이를 꺼리자, 최충수는 강제로 태자비를 궁밖으로 내쫓고 자신의 딸을 일컬어 시킬 것을 계획하고 이를 단행하려 하였다. 이때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최충헌은 최충수를 찾아 가서 조용히 그 부당함을 타 일렸다.

최충헌은 모든 정적을 몰리치고, 오직 독무대에서 대권을 휘둘렀으나, 그 정치는 백성의 부리에 미치지 못하였고 각 지방에서는 계속된 역모와 민란이 빈번하였다. 그 중에서도 최충헌의 사동(私僮)에 만적(萬積)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만적이야말로 노비 해방의 기치(旗幟)를 높이 들고, 민중을 선동해서 지

최충헌은 모든 정적을 몰리치고, 오직 독무대에서 대권을 휘둘렀으나, 그 정치는 백성의 부리에 미치지 못하였고 각 지방에서는 계속된 역모와 민란이 빈번하였다. 그 중에서도 최충헌의 사동(私僮)에 만적(萬積)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만적이야말로 노비 해방의 기치(旗幟)를 높이 들고, 민중을 선동해서 지

최충헌은 모든 정적을 몰리치고, 오직 독무대에서 대권을 휘둘렀으나, 그 정치는 백성의 부리에 미치지 못하였고 각 지방에서는 계속된 역모와 민란이 빈번하였다. 그 중에서도 최충헌의 사동(私僮)에 만적(萬積)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만적이야말로 노비 해방의 기치(旗幟)를 높이 들고, 민중을 선동해서 지

최충헌은 모든 정적을 몰리치고, 오직 독무대에서 대권을 휘둘렀으나, 그 정치는 백성의 부리에 미치지 못하였고 각 지방에서는 계속된 역모와 민란이 빈번하였다. 그 중에서도 최충헌의 사동(私僮)에 만적(萬積)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만적이야말로 노비 해방의 기치(旗幟)를 높이 들고, 민중을 선동해서 지

최충헌은 모든 정적을 몰리치고, 오직 독무대에서 대권을 휘둘렀으나, 그 정치는 백성의 부리에 미치지 못하였고 각 지방에서는 계속된 역모와 민란이 빈번하였다. 그 중에서도 최충헌의 사동(私僮)에 만적(萬積)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만적이야말로 노비 해방의 기치(旗幟)를 높이 들고, 민중을 선동해서 지

최충헌은 모든 정적을 몰리치고, 오직 독무대에서 대권을 휘둘렀으나, 그 정치는 백성의 부리에 미치지 못하였고 각 지방에서는 계속된 역모와 민란이 빈번하였다. 그 중에서도 최충헌의 사동(私僮)에 만적(萬積)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만적이야말로 노비 해방의 기치(旗幟)를 높이 들고, 민중을 선동해서 지

### 各處에 私奴·農民蜂起 金俊·崔氏政權 打倒

최충헌은 모든 정적을 몰리치고, 오직 독무대에서 대권을 휘둘렀으나, 그 정치는 백성의 부리에 미치지 못하였고 각 지방에서는 계속된 역모와 민란이 빈번하였다. 그 중에서도 최충헌의 사동(私僮)에 만적(萬積)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만적이야말로 노비 해방의 기치(旗幟)를 높이 들고, 민중을 선동해서 지

최충헌은 모든 정적을 몰리치고, 오직 독무대에서 대권을 휘둘렀으나, 그 정치는 백성의 부리에 미치지 못하였고 각 지방에서는 계속된 역모와 민란이 빈번하였다. 그 중에서도 최충헌의 사동(私僮)에 만적(萬積)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만적이야말로 노비 해방의 기치(旗幟)를 높이 들고, 민중을 선동해서 지

최충헌은 모든 정적을 몰리치고, 오직 독무대에서 대권을 휘둘렀으나, 그 정치는 백성의 부리에 미치지 못하였고 각 지방에서는 계속된 역모와 민란이 빈번하였다. 그 중에서도 최충헌의 사동(私僮)에 만적(萬積)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만적이야말로 노비 해방의 기치(旗幟)를 높이 들고, 민중을 선동해서 지

大韓重機協會 總務部長  
安東金氏密直司使公派宗親會  
會長 金 惠 默  
서울·冠岳區 奉天七洞 一五一〇一—二  
電話：自 八八六一三八二〇  
社 (〇三六一) 五三三四五五—六〇

釜山鐵道廳  
廳長 金 在 國  
(密直司使公派)  
서울東馬中學校  
校長 金 在 禹  
(密直司公派)

江原大學校經營大學貿易學科  
法學博士 金 泰 倫  
(密直司使公派)  
서울·恩平區 葛峴洞 四三四—三  
電話：三八八一—八 六 四 五

大宗會理事人 都評議公派 鳳會氏 王大  
夫人 義城金氏 啓 宿患으로 지난 九月四日  
(陰八月一日) 釜山 周禮洞 自宅에서 享年  
七十四歲로 別世  
大宗會顧問(初代副會長)인 都評議公派  
用秀氏 大夫人 密陽朴氏 啓 老患으로 지  
난 九月七日(陰八月四日) 서울·城東區 杏  
堂洞 自宅에서 享年 九十一歲로 別世.  
前仁川宗親會副會長인 翼元公派 章會  
氏 啓 宿患으로 지난 十月六日 午後二時  
에 仁川市 京洞 自宅에서 享年 六十八歲로  
別世.

大邱山格國民學校  
都評議公派 金 浣 秀  
大邱市北區 山格洞 一一二—一一二

提學公派 金 八 峰  
서울 九老區加里峰洞 一一五—一七三